구광국의
화엄으로 본 보로부두르대탑

❷ 〈화엄경〉 유통과 보로부두르대탑

▶ 한줄 요약
보로부두르대탑의 2~4회랑의 부조상 대부분은 〈화엄경〉 '입법계품'을 소재로 하고 있다. 이는 인도네시아에 〈화엄경〉이 유통돼 왔다는 중요한 증거이다.



印尼에도 '화엄경' 전파…대탑 사상적 기반

인도네시아에 〈화엄경〉이 유통됐다는 문헌적 단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보로부두르대탑이 발견된 후 선구적 학자인 크롬과 그의 제자 보쉬의 노력으로 보로부두르대탑의 2회랑, 3회랑, 4회랑의 부조상 대부분이 '입법계품'의 내용을 소재로 조성됐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크롬은 대탑의 전체적 구조를 밀교금강계 만다라로 규정하고 그의 이러한 주장은 불교계에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 대탑의 '입법계품' 부조상은 인도네시아 자바에서 〈화엄경〉 유통과 화엄 사상과는 관계없이 일시적이고 우연히 조성된 단지 대탑의 장엄의 용도 정도로만 취급되는 실정이다.

이에 대탑이 '화엄탑'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도네시아에 대탑의 건립 전 〈화엄경〉이 유통되었음을 밝히고 그 화엄사상위에 대탑이 건립되었을 것으로 보일 필연성이 있다. 또한, '화엄탑'임을 밝히기 위해 대탑에 적용된 화엄경류(類)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대탑에 어느 부류의 〈화엄경〉이 적용됐는지에 따라 대탑의 구조와 불상의 명호와 각층의 부조상 파악이 달라진다. 이러한 분석은 대탑이 '밀교탑'이란 논쟁을 종식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다.

먼저, 인도네시아의 〈화엄경〉 유통 역사를 전법승들을 통해 살펴보고 다음으로 불교계에 유통된 화엄경류를 서로 비교하여 보로부두르 건립 당시 유통됐을 〈화엄경〉을 드러내고자 한다.

현재 남방불교권인 이곳에 〈화엄경〉의 유통 가능성에 관한 연구는 미비하나 해상 실크로드의 길목에 위치하여 오래전부터 대승불교의 전법승이 다녀간 기록이 풍부하다.



보로부두르대탑 2회랑 16번 주벽 부조상. 〈화엄경〉 '입법계품' 중 첫 선지식인 문수보살이 적멸도량에서 대중들에게 설법하는 장면을 담았다.

인도네시아 내 불교 유입

인도네시아에 최초로 불교를 전파한 전법승은 계빈국(현 카슈미르) 구나발마(Gunavarman, 367~431)이다. 그의 행적은 자바의 등장과 자바의 불교 전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된다. 구나발마는 계빈국 왕자 출신으로 20세에 출가했고, 30세에 왕위를 마다하고 왕국을 떠나 스리랑카 아바야기리대탑(Abhayagiri)에서 기거했다. 그 후 인도네시아 자바로 수행처를 옮겼는데 이곳의 힌두교 신봉자이던 왕모와 왕을 불교로 교화해 불교 왕국으로 전향시켰다.

구나발마는 왕사로서 국민의 신망을 받았고, 왕은 출가를 결심할 정도로 불심이 깊었다. 고승의 소문이 해외에 이르러 중국 송나라 문제(재위 424~453년)의 간곡한 요청으로 바닷길로 건너가서 424년 남쪽 광저우에 먼저 도착했다. 그 후 유람해 금릉(現 중국 남경) 기원사에 431년 도착하였으며, 왕의 요청이 있어 이전에 동향인 계빈국 고승 불타발타라가 한역 역경한 60〈화엄경〉과 〈십지경〉을 강설했다. 구나발마는 이미 계빈국의 삼장법사였으며 송문제의 초청을 받아 금릉에서 〈화엄경〉과 〈십지경〉을 설했다는 것은 인도네시아 자바 체류 기간에 〈화엄경〉과 〈십지경〉을 설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이른 시기에 인도네시아 최초로 〈화엄경〉이 전파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외 직접적으로 인도네시아에 〈화엄경〉을 전파한 기록은 없지만 다른 곳에서 〈화엄경〉을 역경하고 전파한 전법승들이 이곳을 경유한 사례들은 여럿 있다. 〈불국기〉를 저술한 구법승 법현(法顯, 339~420)은 인도와 스리랑카에서 구법 후 412년에 6개월간 자바에서 체류하고 15년 만에 귀국하여 60〈화엄경〉 역경 사업(418~420)에 참여했으며, 중국 3대 역경승의 한 명인 인도 웃자인 출신 진제(499~569)는 〈화엄경〉을 가지고 해상 길로 중국에 가서 〈화엄경〉을 역경했다. 〈대당서역구법고승전(大唐西域求法高僧傳)〉에 의하면 역경승 의정(義淨, 636~713)은 인도 나란다 대학 유학과 귀국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에 8년간(687~695) 머물렀는데 장안에 귀국해 80〈화엄경〉 역경에 참여했다.

남인도 마두라이 출신인 보디세나(Bodhisena, 704~760)는 733년경 참파(현 베트남 중부와 남부 지역에서 2세기 말부터 17세기 말까지 존재한 현 비엣족과 다른 강성한 참족의 왕국)를 지나 735년경 일본에 도착해 25여 년 기거하며 동대사 노사나불을 점안했으며 화엄종을 창건하고 범어를 가르쳤다.

이들의 행적에는 이들이 직접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 화엄 사상을 교류한 사실을 밝히는 확실한 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전법승은 그들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 일생을 바쳐 여러 곳을 유람하며, 가는 곳곳의 승가 집단에서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거주하며 법을 펴는 특징을 보이는데 이를 근거로 구나발마 이후에도 해상 무역의 거점인 인도네시아는 불교사상과 문화의 거점으로 화엄의 전법승들이 그들의 화엄 사상을 이곳에서 교류하고 전파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 **塔 2~4회랑 부조상 '입법계품' 소재인니 '화엄경' 유통됐다는 중요 증거**
> **대승불교권 구법승들 인니서 활동해**
> **산스크리트본 '화엄경' 조성에 바탕**

전체적으로 전법승들의 행장과 정황을 정리해 보면 인도네시아 〈화엄경〉의 유통은 구나발마에 의해 5세기에 시작돼 〈화엄경〉의 사상이 응용된 보로부두르대탑을 건립(775~835년)한 시기에 정점을 거쳐, 사일렌드라 마지막 왕 발라푸트라(Balaputra, 재위 833~873?)가 축출된 856년 이후 한동안 지속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당시 유통되던 화엄경전류 비교

보로부두르대탑은 인도네시아에서 〈화엄경〉이 유통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다. 이에 당시 유통됐던 〈화엄경〉 내용과 구조를 보로부두르 대탑의 구조와 상호비교분석해 둘이 일치성을 확인하면 대탑이 '화엄탑'임을 밝히는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에는 현재까지 〈화엄경〉이 출토됐거나 보존돼 있지 않다. 따라서 현존하는 한역 〈화엄경〉의 분석을 통하여 자바에서 보로부두르대탑을 건립(775~835년)한 시기에 유통됐을 화엄경을 드러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대탑건립의 시기, 세계불교계에는 산스크리트본 〈화엄경〉, 60〈화엄경〉, 80〈화엄경〉이 유통되던 때이다. 80〈화엄경〉은 60〈화엄경〉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다시 역경된 경전이다. 실제로 80〈화엄경〉에 추가된 부분을 빼면 번역 시 음역과 의역의 차이가 있으나 60〈화엄경〉과 거의 같다. 이 의미는 60〈화엄경〉과 80〈화엄경〉의 기본 원본이 크게 다르지 않으며, 산스크리트본 〈화엄경〉이 그 당시까지 일반적으로 유통됐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일반적 유통 현황을 근거로 한자권이 아닌 산스크리트어가 통용된 대승불교 왕국이었던 자바의 사일렌드라 왕국에서 산스크리트본 〈화엄경〉이 통용됐음은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계적으로는 당시 사용되던 산스크리트본 〈화엄경〉 완본이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산스크리트본 〈화엄경〉의 내용과 구성을 밝혀주는 자료는 60〈화엄경〉과 80〈화엄경〉과 〈자은화엄〉이다.

〈자은화엄〉은 중국 화엄종 2조 지엄(智儼, 602~668)이 대자은사에서 산스크리트 본 〈화엄경〉을 보고 직접 품을 정리한 내용이다. 현시점에서 자바에 유통된 산스크리트 화엄경을 밝히기 위해 〈자은화엄〉, 60〈화엄경〉, 80〈화엄경〉의 품을 분석 비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화엄경〉 들의 품(品)을 서로 비교분석해 품의 이름과 구성을 파악이 필요하다. 이는 대탑 구조에 적용된 〈화엄경〉과 화엄사상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대탑 활용 화엄경은 산스크리트본

반야삼장에 의해 795~798년 편찬된 40〈화엄경〉은 1품인 '입부사의해탈경계보현행원품(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으로 이뤄져 대탑의 전체적 구조를 보여주지 못함으로 품 구성도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60〈화엄경〉, 80〈화엄경〉, 〈자은화엄〉의 품을 서로 비교한 결과 상당 부분 60〈화엄경〉 품명과 일치되는 번역을 했다. 그러나 '적멸도량회(寂滅道場會)' 부분에서 〈자은화엄〉의 품이 80〈화엄경〉의 품과 더 일치함을 보임으로써 60〈화엄경〉보다 80〈화엄경〉이 현존하는 경전 중에 가장 산스크리트본에 가까운 경전이라 할 수 있겠다.

80〈화엄경〉이 39품인데 반해 〈자은화엄〉은 44품으로 구성됐다. 60〈화엄경〉을 보완하기 위해 측천무후의 명에 의해 실차난타(實叉難陀, 652~710)가 80〈화엄경〉을 역경하고 그 후 보완을 걸쳐 지금의 80〈화엄경〉이 완성본으로 유통됨을 보았을 때 보로부두르대탑 당시 유통됐을 산스크리트본은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산스크리트본은 80〈화엄경〉의 5품 華藏世界品과 39품 入法界品에서만 품이 증가하였으며 그 외에서는 80〈화엄경〉의 품을 거의 다 품고 있기에 두 본 경의 내용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같은 내용으로 판단이 된다. 따라서 보로부두르대탑의 구조와 불상 부조상을 분석하고 해석 시 80〈화엄경〉을 위주로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인도네시아에서 산스크리트본 〈화엄경〉이 유통돼 그 위에 화엄대탑이 건설되었을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이러한 가능성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80〈화엄경〉에 근거해 〈화엄경〉의 사상적 구조와 대탑의 10층 구조를 배대하고 불상의 배치를 〈화엄경〉의 불타관 우주관에 근거해 세밀히 보여줘 각 회랑의 부조상 분석을 〈화엄경〉의 수행 계위인 52계위(階位)에서 해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아제여행사 대표〉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김영숙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겨울철
난방(煖房)
걱정 끝!

바닥철거 없이 시공가능 난방비 50% 절감

21세기 신 난방 문화의 대변혁 : 법당, 요사채, 선방, 공양간 등

◈ 시공실적 ◈

해인사 백련암, 미황사(해남), 대흥사(단양), 용담사(안동), 연꽃마을(용인요양원), 경남 고성 대명사, 전국 캠핑장 캠핑트레일러(경인 아라뱃길, 가평 자라섬), 대부도 캠핑장, 성동힐링센터(동강) 등

"정직한 시공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원난방산업 문의 010-3267-1263